

사회

예고없는 '건보료 폭탄' 직장인 뿔났다

적자 건보료 정산액+인상분 기습 부과... 불만 폭주 항의전화 빗발

상당수 직장의 월급날이 풀린 지난 25일 이후 크게 오른 건강보험료와 건강보험정산액 징수를 확인한 직장인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건보료 폭탄'을 맞은 직장인들은 관계당국이 건보료 인상에 대해 사전에 아무런 설명을 해주지 않은 데다가 어린아날 등으로 각종 지출이 증가하는 5월을 앞두고 있어 반발은 더 크다.

상당수 직장인들은 갑작스런 건보료 폭탄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항의성 글을 잇달아 올리려 등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올라 하루하루 지내기도 빠듯한데 예기치 못한 폭탄이 월급에서 빠져나가 허탈했다"면서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사전에 예고해주시지 않은 관계당국의 처사가 야속하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또 다른 직장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인상된 건보료와 건강보험정산으로 평소보다 월급이 40만원 정도 적게 나왔다"면서 "이 정도 돈이면 아이들 한 달 보육료도 쓸 수 있다"는 글을 남겼다.

복지부와 각종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게시판에도 이번 건보료와 관련된 불만 글이 폭주하고 있는 상태이며, 관계부서에도 항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0년도 건강보험료 정산 실적 결과 총 1조4533억원(1072만명)의 정산보합료가 발생했다. 1인당 평균 정산금액은 13만5550원(사용자와 가입자 각각 50%씩 부담)이다.

이는 지난 2009년에 비해 총 8043억원(1020만명)보다 무려 80% 가량(6490)이나 증가한 액수이며, 1인당 평균 금액도 5만원 이상 오른 것이다.

복지부는 인상된 건보료와 건강보

험정산액에 대해 지난해 경제 여건이 호전되면서 기업을 성과급 지급을 확대하는 등 직장인의 평균 임금에 대체로 올랐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5인 이상 사업체의 임금 상승률이 6.1%로 전년도에 비해 5% 이상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보험료도 인상된 것"이라며 "임금 변동으로 인한 보험료 정산액을 최소화하려면 임금 변동시 건강보험공단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동네 한바퀴 주부순찰단'

광주시 북구 '동네 한바퀴 주부순찰단'과 북부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26일 운암동 대자초등학교에서 아동 범죄 예방을 위한 안전천 등·하굣길 순찰을 하고 있다. /최혜미기자 choi@kwangju.co.kr

이들은 건보료 인상이 각종 물가나 전셋값 상승률 등 직장인들이 겪고 있는 실질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데다가 사전 예고도 하지 않아 또 다른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태.

또 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부과했다가 이듬해 2월 확정된 소득을 기준으로 다시 부과하면서 발생하는 차액인 '건강보험정산'으로 직장인들이 느끼는 부담이 배가되고 있다.

실제 회사원 윤모(45·광주시 북구 두암동)씨의 경우 평소 4만원 수준이던 건강보험료가 이번 달에 5만3000원으로 1만원 정도 올라 부과된데다가 건강보험정산으로 10만5000원이 징수됐다.

결국 평소에 비해 건강보험료 명목으로 11만원 가량을 더 지출하게 된 셈이다.

윤씨는 "가득이나 생활품 가격이

영업정지 전날 부정대출 보해저축銀도 수사

檢, 전주저축銀 등 7곳 마감후 인출 3000여건 추정

'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해당 저축은행들에서 영업정지 직전 대규모 예금인출이 이뤄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호경)는 26일 불법 대출 의혹이 불거진 보해저축은행에서 영업정지 전날 특정인용 인출이 부정하게 이뤄졌는지 여부를 수사 중이다.

검찰은 저축은행 임직원들이 영업정지 전날 친인척이나 지인에게 연락해 예금을 미리 인출하도록 하거나 실명 확인 없이 예금을 불법 인출한 것이 아냐고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또 불법대출 혐의로 고발된 전주저축은행 등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사 5곳에 대해서도 부정 예금인출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영업정지 전날 거액의

예금인출이 이뤄진 부산저축은행그룹 직원 10명을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감독기관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소환하는 한편, 금융당국에서 예금인출자 명단과 인출액 등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 중이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 전주저축은행 등 부산저축은행 계열사 5곳과 보

해저축은행, 도민저축은행 등 7곳에서 영업정지 전날 마감 이후 1077억원(3588건)이 인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불거진 '부정 예금인출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엄격히 대응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광주지검은 이날 보해저축은행을 관리·감독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특기법상 뇌물)로 금융감독원 2급 검사역 정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씨는 지난해 10월 '검사 과정에서 선처를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보해저축은행 오문철 대표이사로부터 4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혜미기자 choi@kwangju.co.kr

신안 천일염 뜯다니까...

영광소금 1만포 신안산 둔갑 유통업자 붙잡혀

일본 원전 사고 이후 신안 천일염이 각광을 받으면서 영광산 소금을 신안 천일염으로 속여 시중에 유통한 유통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소금 유통업자 J씨는 지난 3월 말께 영광군 백수읍 모 천일염 생산공장에서 영광산 천일염을 30kg짜리 신안 소금 포대에 담은 이른바 '포대 갈이'를 했다.

이들간 '포대 갈이'를 한 소금은 1만여 포대. 천일염이 시중에 서 한 포대당 2만5000원에 거래된 점을 감안하면 25억원 상당이다. J씨가 원산지를 속여 판 이유는 영광산 소금보다 신안산 천일염이 전국적인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 원전 사고 이후 신안산 천일염을 찾는 소비자들이 급증한 점도 '포대 갈이'를 한 이유 중의 하나다.

영광군 관계자는 "영광산이나 신안산 모두 그 성분에서 큰 차이는 없지만, 신안산 천일염에 대한 소비자들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 신안 소금 포대를 사용하면 더 팔릴 것으로 생각하고 원산지를 속인 것 같다"고 말했다. 영광경찰은 J씨를 원산지 표시 위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서부취재본부=조익성기자 ischo@



애먼사람 전과자 될 뻔

광주 북부 경찰 피의자 부실 확인 친구 신분증 제시 모르고 영장 신청

경찰이 친구의 인적사항을 제시한 피의자에게 속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26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3일 새벽 1시께 광주시 북구 일곡동 주택가 밀집지역 내 한 단독주택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던 박모(31)씨를 붙잡았다.

2009년 사기 등 혐의로 지명수배된 박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수배 사실이 들릴까 우려해 평소 갖고 다니던 친구 윤모(30)씨의 신분증을 제시했다.

경찰은 박씨에게 속아 윤씨의 이름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경찰의 수사기록을 믿고 구속수사를 지휘했으나, 박씨는 남의 이름으로 법

원에서 영장 실질 심사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윤씨 이름으로 신청된 구속영장을 기각됐다. 법원은 박씨가 실제 업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점 등을 고려해 범죄 혐의에 대한 입증부족이라고 판단한 것 같다.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영장이 기각된 뒤에야 박씨가 자신의 신원을 속인 사실을 파악해 박씨의 이름으로 다시 피의자 조사를 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문 등을 확인해 더 면밀하게 신원을 확인했어야 하는데 박씨가 제시한 윤씨의 신분증 사진이 희미해 속아 넘어 갔다"고 말했다.

/이중행기자 gilee@kwangju.co.kr

멤공사 하도급 수주 대가 전남도 공무원 등 3명 구속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호경)는 26일 사방법 공사의 하도급을 맡기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전남도청 6급 공무원 A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또 A씨에게 돈을 건넨 건설업자 B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A씨의 수뢰 사실을 발미로 돈을 뜯어낸 C씨 등 건설업자 2명을 공갈 혐의로 구속했다.

/최혜미기자 choi@kwangju.co.kr

현대공인중개사 토지 매매

- ▶자연녹지(물류창고, 공장적합) 광산구비아동, 비아 IC에서 5분거리, 11.463㎡(3.468평) 3.3㎡당 70만원
- ▶계획관리지역 (물류창고, 공장기타등가능) 광산구 송학동, 나주 IC에서 3분거리, 21.914㎡(6.630평) 매매가 22억
- ▶계획관리지역 (전원주택, 연수원 공장, 창고, 투자, 기타) 광산구 양동, 용성자동차 학원근처, 28.845㎡(8.726평) 대지 약4800평, 건축물 있음, 매매가 13억
- ▶중주거지역 (병원, 사육, 임대용상가건물신축부지적합) 화정동, 광소간도로변, 지하철거부근 대지1,520㎡(460평) 3.3㎡당 300만원

수익성 좋은 상가건물 매매

- ▶품암동, 지상6층건물, 보증금1억2천만원 월820만원 매매가13억5천만원
- ▶용봉동 지상4층 보증금2억2천 월810만원 매매가13억

수익성 좋은 다가구 주택

- ▶화정동, 4층건물, 원룸10실, 투룸3실, 쓰리룸2실, 4층 본인 거주 보증금9천 월400만원 매매가5억5천만원

공장 건물 매도

- ▶광산구 우산동, 광주공항 인근 대지2,975㎡(900평) 건평 594.5㎡(180평) 매매가8억

<규> 수익성 좋은 상가건물, 토지

■ 본 광고물건은 전속 계약된 물건임 ■

T. 062)371-1900, 010-2006-0115
삼무 우리빌딩에서 50m지점 www.85858949.co.kr

토지 매매

위치 : 나주시 노안면 오정리

- 대지 : 4,000평
- 건물 : 650평
- 전 : 9,500평
- 합계 : 13,500평
- 매매가 : 협의 후 결정

▶ 광주 ~ 무안 고속도로(나주 IC 입구)

▶ 광주에서 8분거리

길잡이공인중개사

• 상표등록 : 41-0163369호 •

☎ 011-620-3960 ☎ 062-381-6000
(상무지구 5.18기념 공원사거리)

유통화 자산매각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목포중앙병원

- ▶대지 7867평
- ▶건물 2510평
- ▶감정가액 126억원
- ▶매매가액 80억원(협의후결정)

순천시 바이오디젤공장

- ▶대지 2537평
- ▶건물 2148평(지하1층 지상10층)
- ▶감정가액 41억원
- ▶매매가액 24억원(협의후결정)

광주블로트 그랜드 호텔

- ▶대지 683평
- ▶건물 2148평(지하1층 지상10층)
- ▶감정가액 80억원
- ▶매매가액 45억원(협의후결정)

군산시 바이오디젤공장

- ▶대지 10000평
- ▶건물 1976평
- ▶감정가액 99억4천
- ▶매매가액 55억원(협의후결정)

해남 명골로도

- ▶대지 2284평
- ▶건물 2654평(지하1층 지상8층)
- ▶감정가액 83억원
- ▶매매가액 35억원(협의후결정)

전주 노송병원

- ▶대지 548평
- ▶건물 2209평
- ▶감정가액 75억원(지하3층 지상8층)
- ▶매매가액 40억원(협의후결정)

* 유통화 자산매각은 유통회사 유입부동산이나 경제실태조사 물건을 매수인에게 좀더 유리한 조건으로 매각하는 절차입니다.

전문상담 ☎ 010-7570-7525

부동산 경매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2 12층(법원 앞에서 70m 변호사회관 옆 건물) 또는 (지산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assetkorea.com = 전국 2만여건의 경매물건리스트 /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 경매전문가 무료상담
최고수익률 / 세금계산서 발급(양도세감면) / 신속한 명도 / 정확한 권리분석 / 최상의 대출
에셋코리아에서는 꼼꼼하게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수익성 있는 우량물건을 추천합니다.

군민시설/원룸	대표이사 010-7570-7525	수익시설/상가	김태호전문부서 011-684-3886	공정/토지	김찬승이사 010-8033-0114				
소재지	대지면적	건평	최저가	비고	소재지	대지면적	건평	최저가	비고
순천	4814.2378	41982	11982	10월	순천	41647.23870	299	15억	2층공공
광주	4835.2128	12922	5952	6층(인대시술소)	순천	42428.21104	294	1억	1층공공
광주	4199.2175	6912	3944	상가(모텔)	순천	42779.21324	209	7932	2층공공
광주	4837.2404	329	2295	7층(음양생원)	영광	42624.212810	393	1952	7층(민간)
광주	4176.2194	7962	5952	단층(음양생원)	영광	415437	29	5272	1층
광주	4202.2455	3944	2944	5층(PC방)	광주	414460	5	2292	1층
광주	4142.2173	6992	29	전원주택	순천	4212	1972	9292	대지
광주	4403.2182	109	2992	단층상가	광주	41111	2932	1952	농지
광주	4810.2143	159	10952	5층(민간시설)	나주	413328	129	6942	점점
광주	4188.2179	2992	29	2층(노후화)	순천	425289	1952	8292	1층
광주	4394.2161	79	4992	대(구)원룸	광주	4209.2147	3912	2942	4층(민간)
광주	4274.2147	49	2992	원룸(18세대)	광주	42668.21166	29	1942	대지
광주	4885.2184	109	79	2층(민간시설)	광주	4170	8292	5292	농지

아파트/빌라

소재지	명칭	㎡	총층	건평	최저가	비고
순천	이안리초빌	84	03/03	29	1942	
무등	대주빌	132	03/03	1972	1972	
순천	중흥아파트	76	14/12	1912	7872	
무등	성호아파트	84	12/06	9292	6292	
전주	대주빌	142	07/15	1952	1912	
광주	비문신아파트	79	10/09	1912	9292	
광주	이문신아파트	147	24/21	3992	2992	
광주	수원신아파트	84	3/6	1952	1912	
광주	현신아파트	116	23/5	2992	2992	
광주	이문신아파트	113	13/4	3952	2942	
광주	금호동	164	17/7	2972	1952	
광주	삼익세라미	154	15/3	1972	1912	

주택/재개발

소재지	대지면적	건평	최저가	비고
순천	4207.21162	1922	72	단층주택
순천	4146.21129	9292	6292	2층주택
순천	4148.21151	1972	62	2층주택
순천	4137.21226	1952	1912	3층주택
순천	4332.21127	3922	2292	단층주택
순천	4393.21189	9292	4292	단층주택
순천	4149.21103	7292	4292	단층주택
순천	4156.21196	1922	8292	2층주택
순천	4120.21161	9292	6292	3층주택
순천	4131.21169	1922	8292	2층주택
순천	4166.21106	1922	8292	단층주택
순천	4122.21202	1922	1922	2층주택

영원, 교회, 사육, 모델, 상가 등 원하시는 부동산을 접수해 주시면 가장빠른시간안에 가장 좋은 조건으로 찾아드립니다. ■ 상담 및 접수 010-7570-7525

광주대학교 평생교육원 '부동산경매전문가(실천)과정' 2학기(15주) 수강예약 2011년 7월 31일까지 마감
물건중심의 실천교육반 정원 50명 • 상담 및 서류접수 236-3400

라이터 달라!며 행패에 폭행까지

○광주서부경찰은 26일 읍주단속중이던 의경대원에게 시비를 걸다가 폭행한 오모(34·광주시 서구 쌍촌동)씨를 공무원행방해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25일 밤 10시10분께 광주시 서구 쌍촌동 5·18공원 앞 도로에서 서부서방범순찰대 소속 한모(20)의경의 면살을 잡아 흔들고 넘어뜨리려 한 혐의.

○경찰조사 결과 술을 마신 채 온전대를 잡은 지인의 차량을 타고 귀가중이던 오씨는 한 일경이 읍주단속을 벌이자 술에 취해 "라이터를 달라"며 행패를 부리다가 폭행까지 한 것으로 확인.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